



허정림 | 이화여자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 환경공학박사 /  
집이 우리를 죽인다! 저자  
(jr529@naver.com)

하천이야기 10

# 강에서 부르고 싶은 이름

고즈넉한 해질 녘의 강가에 서면 왠지 부르고 싶어지는 이름이 있다. 입가를 맴도는 이름들... 그런데 왠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마음만 먹먹해 온다. 그렇게 그리움에 젖어든 이름은 마음에 편린 되어 박혀 버려서인지 좀처럼 불러지지 않고 입가를 맴 돌 뿐이다. 때론 가물거리는 강가의 물안개처럼 이름마저 희미한 기억 속에 묻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더 쓸쓸해진다.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마음의 염려도 왠지 미안함으로 변진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기억은 떨어져 가지만 자주 과거로의 기억의 열차에 타고만 싶어진다. 아이가 어리고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시절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름들이 스쳐 지나간다. 뇌리 속에 언제 살아있었다가 다시 스멀대면서 일어나는 기억들은 추억이란 이름으로 과거의 여행을 동행하려는 지도 모른다.

요즘은 한 때 인터넷의 공급과 개인 컴퓨터의 보급으로 히트되었던 동창 찾아주는 '아이러브스쿨'이란 서비스는 이미 퇴물이 되었다. 늘 몸과 유착되어 있어 24시간을 한 몸 되어 함께 존재하는 스마트폰의 그 편리함과 즉각적인 응답의 스피디한 위력 앞에서는 퇴출된 구세대의 유물만 같다. 그래서인지 누구나의 스마트폰에는 바탕화면을 깔고 있는 적지 않은 수의 각종 밴드라고 하는 모임의 이모티콘 중의 하나인 동창모임

밴드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왜 나이가 들면 과거의 이름들을 부르고 싶어질까? 나의 경우에는 동창밴드 모임에 나가지도 댓글로 응답하지도 않는 냉담자이지만 선뜻 이 밤낮 없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려 대는 밴드의 활발한 접속음에도 불구하고 탈퇴하지는 못하고 있다. 가끔씩 들어가 눈팅 하는 친구들의 소식이나 모임들의 사진들 속에서 과거와 만나는 추억을 떠올리는 창구인 밴드를 통한 창문을 닫고 싶진 않아서이다. 그리고 선뜻 나가 그 옛 친구들과 과 새삼스레 만나고 친해진다는 사실이 부담도 되고 번거로운 마음이 앞서 적극적인 참여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나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의 추억에 묻혀 향수를 나누고 있나보다.

가끔은 강가에 앉아 내 귓전을 맴돌 만큼 작은 소리로 라도 그리운 이름을 불러 보고만 싶다. 그 누군가 불러 보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만나보고 싶다. 어디서 만날 수 있으려나...막막함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오히려 동창처럼 한 다리 건너 누군가와 연계가 되어 만날 확률이 높다면 다행이다. 그냥 잠시 아니면 오랫동안 이어왔더라도 예전의 낙후된 연결고리를 가지고 집 전화번호와 주소로 달랑 사람을 찾고 만나던 시절의 사람을 찾기엔 쉽지 않다.



윤미덕 언니! 어찌 보면 참 우린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사뭇 주책맞은 타입들이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누구를 기다렸었던지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앉든 우리 두 사람은 한참을 그 공원의 커다란 느티나무에서 여름날의 찌는 듯한 더위를 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시원하게 바람을 맞았었다. 그렇게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바람을 맞은 채로 모르는 사람으로 옆에 서서 있었던 것이다.

“혹시 누구 기다리시나 봐요? 늦으시나보네요? 만날 분이...”

누가 먼저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바람맞은 여자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둘은 바람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기다리던 사람들은 잊고 시간을 보냈었는지, 아니면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그 이후 진짜 가까운 친자매처럼 지냈다는 사실이다.

그랬다. 언니는 여자자매가 없던 내겐 진짜 친언니처럼 자상하고 의지가 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대학시절을 보내고 처녀 때의 추억들도 만들고 언니 집을 오고갈 만큼 스스럼이 없이 지냈다. 잘생긴 동생과 멋진 둘째 오빠는 근육남의 카메라 맨이었다. 상냥하고 숨씨 좋았던 언니 어머니도 보고 싶다. 그 후 결혼을 해서도 우린 늘 함께였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를 때까지도 말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헤어진 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당시 내가 아닌 내 오빠 때문에 급전을 빌리게 되어 언니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그 이후 언니는 우리의 관계를 부담스러워 했고 난 불편했다. 그저 친 언니 같은 마음

에 급한 심정을 전했지만 난 결코 언니에게 섭섭하거나 속상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다만 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을 뿐이다. 그런데 언니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난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다. 언니와 그런 일로 멀어졌다는 것이 나로 인한 실수가 맘이 아프고 후회스럽다.

강가에 서서 언니를 부르고 싶다. 언니에게 달려가 지난 시간에 내가 했던 오해가 되었던 일을 사죄하고 싶다. 언니를 그냥 볼 수 있다면 아무 일도 없었듯 그냥 달려가 안기고 싶다.



그리고 또 한사람, 대학시절 나와 함께 했던 이희정! 그 친구는 정말이지 동창들 사이에서도 조차 소식을 모른다.

여대의 특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룹으로 친한 친구들과만 왕래하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 상례인지라 오직 나와만 친했던 희정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듯 소식을 알 수 없다.

늘 희정이네 집에서 당시 신학대학을 다니며 선한 웃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던 소설가 이수영을 좋아했던 희정이 둘째오빠의 낡은 책들을 함께 골방에서 읽고 출출하면 시장통의 떡볶이 집에서 오뎅 국물과 함께 호호거리면서 먹었던 추억이 지금도 눈에 밝힌다. 참으로 선한 가족들로 기억되는 키가 컸던 큰오빠와 인자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그림다. 희정이가 졸업을 하고 키가 작고 얼굴이 네모왕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할 때 까지도 신혼집도 가보았었는데 어찌하다 연락이 두절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때 희정이가 이민을 간 것인지, 지방을 간 것인지 알 수도 없다. 그냥 아무런 기억의 단서조차 남기지 않고 우린 헤어졌다.



어디선가 시냇물로 흐르다 강에서 만나듯 그렇게 사람들도 만났었다 헤어졌어도 각자 살아간다 강처럼 다시 만날 날이 온다면 서글프지 않을 것 같다. 언젠가는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있다면 헤어짐 따위가 문제가 될 수 없을 것만 같

다.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만나기 위해 헤어지는 것이라 위로 받을 수 있을 것만 같다.

윤미덕언니. 그리고 이희정 내 친구....

강가에 서서 그리운 이들의 이름을 불러 본다면 대낮의 이 글거리는 햇볕에 부딪히면 반짝이는 강물의 은파처럼 그들의 기억 속에서 나도 살아나 기억되고 그들도 나를 부르고 싶어 졌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고 보니 그동안 어떤 삶의 무게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함 보다 걱정이 앞선다. 아프지나 않은 건지, 살아나 있는지...방정맞은 생각에 도리질을 해 본다. 그 만큼 우린 이미 늙어 가고 있고 또 기억마저도 담보할 수 없을지도 모를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버티고 있다.



누군가가 그림과 생각이 난다면 고즈넉한 저녁 어느 날엔가 작은 소리로 그리운 이름을 불러보자. 옛사랑도 좋

고 오랜 친구도 좋다. 미안했던 사람도 고마웠던 사람도 좋다. 기억이 남아있을 때, 적어도 내 기억의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았을 때 그리운 이름들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들을 불러 보자.

꼭 만나지 않아도 좋다. 내 마음 속에 살아 있는 추억 속의 그 이름을 불러 볼 수 있음에 감사하자. 누군가는 그런 이름조차 없이 사막처럼 메말라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더 건조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어느 날 문득 그리운 이름을 기억하고 가슴 저며, 움켜쥐어 본들 이미 말라 버린 마음이 바짝 말린 낙엽처럼 바스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하루하루 살아가며 가끔은 강가에 서서 강가를 피어오르는 물안개처럼 촉촉한 감성과 추억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젊은 날의 나와 나를 흑시나 기억해 줄 그리운 사람들을 불러 보며 살아가자.

흑시나 나의 울림으로 뒤 돌아 봐 줄 그리운 이와의 인연이 다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



(이미지네이버)